

# “가을 찰옥수수 이달 중하순까지 심어야”

농진청, 중부·남부 산간지 7월 15~20일, 남부·해안지 7월 25일 이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달 중하순까지 가을 재배 찰옥수수 심기를 마쳐야 한다고 전했다.

중부·남부 산간 지역은 15일부터 20일 사이, 남부·해안지역은 25일 이전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옥수수 알이 제대로 차지 않고 서리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을 재배는 옥수수 등숙 온도가 낮아 15일에 파종하면 10월 5~10일(수염 출현 후 26~28일) 사이, 7월 20일에 파종하면 10월 10~20일(수염 출현



후 29~31일) 사이에 수확할 수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옮겨 심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모기르기 상자(트레이)에 종자를 심어 씩이 뜬 지 6~10일 뒤, 본잎이 2~3개 나온 시기에 본 밭에 옮겨심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통상 실시권을 맺은 업체를 통해 이기작 찰옥수수 '찰옥4호'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무상기간(無霜期)이 길어지면서 일부 여름작물을 늦가을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가을에 재배하는 찰옥수수는 알이 차오르는 시기에 온도가 낮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찰기가 있어 맛과 품질도 우수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정화 과장은 “늦가을에 생산되는 찰옥수수는 농가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연중 신선한 농산물을 맛보게 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는 완주군 구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교육용TV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실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교육용TV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완주군 구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교육용TV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일 이진영 구이남성의용소방대장, 하선에 구이여성의용소방대장, 이상경 소방대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지역사회 다양한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랑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화재예방에 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구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교육용TV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신규입병 의용소방대원 대상 기본교육 및 매년 정해진 전문교육 훈련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도록 도왔다.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오만호 기자

## 김경안 새만금청장, 전주상의 회장단에 새만금 홍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2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새만금에 잇따르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입주 기업들의 투자 동향 정보와 새만금의 3대 허브 계획 등 새만금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새만금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새만금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 구상을 설명하며 행사에 참여한 상공인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김청장 회장을 비롯한 37명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했다.

김경안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투자 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 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 IS그룹, 백광산업, 성일하이텍 이차전지 소재, 원료,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로 10.2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전북농협, 범농협 등 60여명 폭우 피해 복구 위해 총력

익산지역 축산 농가 찾아 일손돕기 나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12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 등 범농협 임직원(농협 사료전북지사, 농협사료군산바이오, 목우촌김제육가공) 60여명과 함께 지난 8일 시작된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익산의 축산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를 위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기상청에 의하면 전북은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익산시 236.1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됐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익산

생하지 않도록 분도저리 및 주변 환경 정리를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 밖에도 전북농협은 이재민을 위한 구호키트 및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 하였고, 침수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익산·완주 등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농협 임직원의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사상 유례없는 극한 폭우로 인하여 도내 많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전북농협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재해 발생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신속조치 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도내 청년어업인 육성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지난 11~12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어업인 육성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어업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슬로건으로 도내 청년 귀어인을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내 청년 어업인들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향후 청년어업인 정착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진행된 주요 내용은 전북청년어업인연합회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 발표, 수산정책과 마케팅전략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특강자로 초청된 (주)봉선장 이봉국 대표는 “전북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으로 청년 어업인들이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어업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시사하였다.

전북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출범 후에는 어촌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등 도내 청년어업인들의 입지 확대를 위한 사업연계 및 후배 어업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내 청년어업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힘을 합쳐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공제금·무이자 대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소득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170만 명이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

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천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약 5만 명에 달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